

주일학교(3)

1980년대 주일학교는 9개 부서 개교 80주년은 100주년의 예고



청운양로원 위문

1986년 11월 23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친 아동부 학생 14명은 교사 인솔 하에 과일을 나누어 들고 종로구 구기동 218번지 소재 청운양로원을 찾아갔다.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20여명의 할머니들과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의 참뜻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해 간 연극을 보여드렸다. 내용은 누가복음(12:16-21) 말씀으로 엮은 '어리석은 부자'였다. 청운양로원은 1956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연동유치원에서도 자주 찾아가는 곳이었다.



1985학년도 졸업기념

1985년 12월 29일 저녁예배를 졸업예배로 드렸다. 이날 유치부 38명, 유년부 40명, 아동부 52명, 중등부 53명, 고등부 30명, 대학부 7명이 졸업을 했다. 교장 장하린 장로의 사회로 교육위원장 이준영 장로의 기도, 이정민 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교감 이길재 집사의 학사보고에 이어서 졸업증 수여와 시상이 있었다. 당회장상은 문철(고등), 교육위원장상은 윤창미(중등), 주일학교장상은 김유경(아동)과 박성미(유년)가 차지했다.



개교 80주년 기념예배

1987년 5월 3일 3부예배 때 주일학교 창립 8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김형태 목사가 '어린이 학습'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총회 교육부 문전섭 목사가 축사를 했다. 이어서 학교 창립에 공로가 컸던 김종상 장로 가문에 공로패를 수여하고 학생들에게 떡을 나누어주었다. 오후 2시부터는 연세대 민경배 목사와 은준관 교수의 기념강좌, 저녁에는 축하 음악예배를 드렸다. 이때 학생은 9개 부서 총 750명, 교사는 120명이었다.

나라를 위한 기도회

김형태 목사 설교와 주재 하에 일주일 후 군부 독재정치 종식



↑ ↓ 태극기와 총회기 사이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형태 목사 - 1987



1987년 5월 12일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2천여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아현동 감리교회당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다. 총회장인 연동교회 김형태 목사가 주제강연을 했다. 이어서 6월 22일 총회인권위원회는 나라를 위한 전국목회자철야기도회를 새문안교회당에서 개최했다. 총회장(김형태 목사)의 설교에 이어 경건한 기도를 마친 뒤 전원이 총회본부를 향해 촛불 시위에 돌입했다. 그러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경찰이 쏜 1백여발의 최루탄을 맞고 되돌아가 철야농성기도회를 가졌다. 이튿날 경찰에 연행된 수십명의 교역자들과 빼앗겼던 총회기가 돌아왔다. 드디어 6월 29일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를 선언, 군부독재는 막을 내렸다.

김형태 목사는 1970년대부터 유신헌법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반대에 앞장섰고 1988년 2월 29일 연동교회당에서 개최된 한기총 제37차 총회단상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문'을 낭독, 통일문제를 제기했다.

성가대

1969년 성가대원을 세례교인으로 규정
1986년 '연못골' '부용' '게일' 명칭 붙여



주일에배의 찬양순서를 맡은 성가대는 특별한 부활절·감사절·성탄절, 그리고 교회창립 기념 때 연합성가대로 편성해 음악예배를 주도했다.

1960년대 이후 연동교회 성가대는 1부예배의 제2성가대, 2부예배의 제1성가대와 주일학교 각 부의 성가대가 있었다. 1973년 2월 1일 음영위원회는 유초등부 성가대를 어린이성가대, 중고등부 성가대를 학생성가대라 하고 혼돈을 피하기 위해 1부예배 성가대를 제1성가대, 2부예배 성가대를 제2성가대라 했다. 1986년에 이르러 종전의 2부예배 성가대를 3부예배 성가대로 바꾸어 게일성가대라 하고 고등부·산업부·대학부·청년부 성가대를 2부예배 성가대로 구성해 부용성가대라 했으며 1부예배 성가대는 이름만 연못골성가대라 이름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로 편성된 부용성가대는 악기를 전공하는 음악도들의 현악양상블과 조화를 이루었다.

1969년부터 1989년까지의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는 다음과 같다.

지 휘 : 김경남 김경순 김영방 김용강
박명섭 박수길 박형규 이종철
임정근 최흥기 한동희

반 주 : 강아람 김주현 김현숙 박소인
유수경 오자경 이경래 이경희
이민우 이순옥 진성희 전용숙
현순옥 황혜영



창곡집(1976-1983)

상 : 부용성가대 - 1987
중 : 게일성가대 - 1988
하 : 연못골성가대 - 1988

남선교회 서울노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는 평신도운동의 교두보
연동 남선교회 지속적으로 참여 이어와



제30회 실행위원회를 마치고(금호중앙교회) - 1988



순회예배 기념(연동교회) - 1992



제13대(1971)
오기억 회장



제25대(1983)
문광렬 회장



제32대(1990)
김관일 부회장



제45대(2004)
이병오 부회장

역대임원 및 실행위원(1970-2004)

강신우	고명환	김광희	김봉환	김영칠	김윤환	김재환	김태룡
김학영	김희원	노순식	박명덕	박상덕	박찬현	박청림	배영복
송선영	신인현	심희순	양한모	오명철	오한영	오한영	유영한
이길하	이삼열	장병혁	장은환	조용상	진중환	한용석	황양환

일제시대를 지나 해방과 한국전쟁 및 장로교의 분열 등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면려회는 1963년 5월 26일 연동교회에서 제6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평신도회로 논의됐다. 그 후 또다시 1977년 9월 남전도회로, 1980년 3월 남선교회로 바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65년 6월부터 연동교회를 비롯해 새문안 등 8교회에서 처음으로 순회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1964년 제7회 총회에서 박명덕 장로가 재정위원장, 1968년 제10회 총회에서 강영만 장로가 협동총무로 피선됐는데 남선교회 서울연합회 정·부회장과 임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연동교회 장로·집사는 왼쪽과 같다. 문광렬 회장 때 서울장로회 회장에 강영만 장로, 서울노회여전도회연합회 회장에 원정옥 권사가 활약해 연동교회는 온 교회와 교계의 부러움을 샀다.

캐나다 한국선교 100주년

게일 선교사 유품전시회 한가협회에서 흉상 제작



1988년 12월 18일 3부예배 직후 캐나다 한국선교(게일 목사)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한가협회와 연동교회가 공동으로 준비해 이날 캐나다 및 영국대사, 토론토대학교 총장(코넬) 등 양국의 인사와 경제인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태 목사의 사회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가협회에 제3회 게일문화상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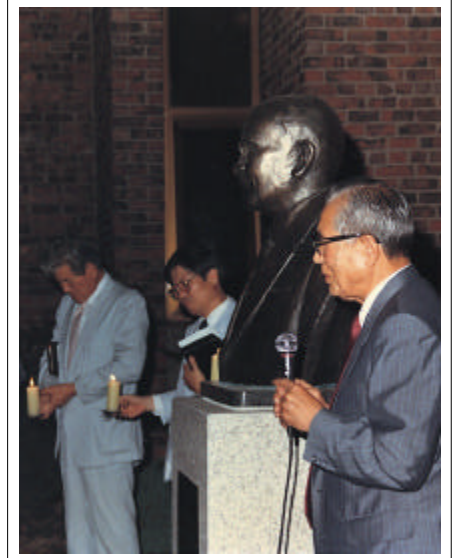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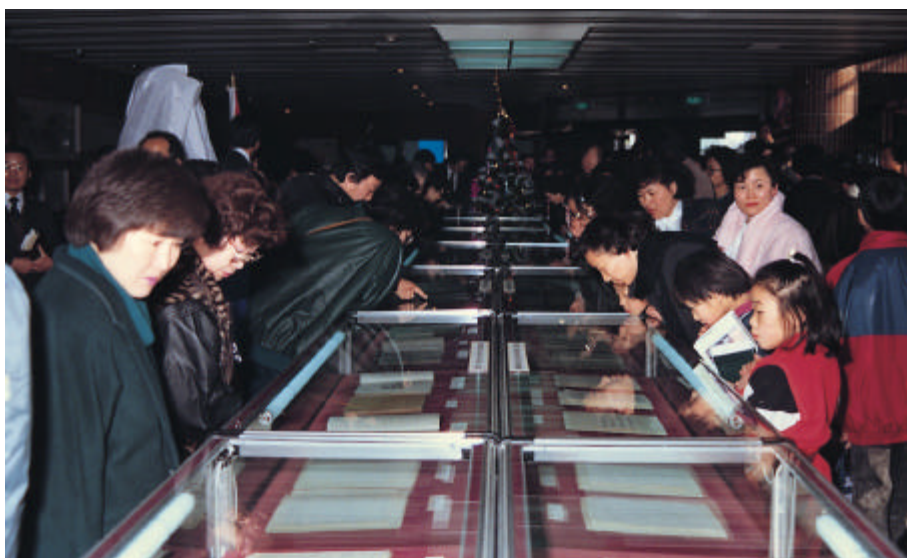
자리를 옮겨 오후 1시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1층 로비)에서 게일 목사 유품전시회를 열면서 흉상 제막식에 이어 기념강연회(강사: 유영식 목사)와 다과회가 있었다. 유품은 한국 주재 캐나다대사관의 주선으로 토론토대학교 토마스피셔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게일 목사의 문서 및 서책 등 4백여점을 반입해 연동교회 사료반(반장: 고춘섭 집사)의 분류와 진열로 전시했다. 흉상은 한가경제인협력위원회에서 경비를 대고 서울시립대 김창희 교수가 조각, 전시회가 끝난 저녁 늦게 교회 구내로 옮겨 세웠다.



상 : 김형태 목사의 사회

중 : 코넬 토론토대학교 총장
(가운데)

하 : (좌) 유품을 관람하는 일반인
(우) 교회 마당에 흉상 안치
(게일 목사 흉상 옆에서 기도하는
진영득 장로)



연동소식 · 연못골

1969년 '연동소식' 창간 1991년 '연못골'로 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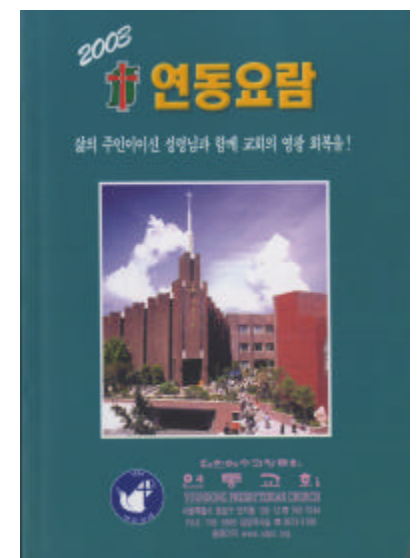


1969년 1월 26일 '연동소식'을 창간했다. 목회지침 · 교회소식 · 교우소식 등이 4쪽(4.6배판)에 실려 매월 교인에게는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교우들에게까지 발송됐다. 15년 만인 1984년 3월에 지면을 6쪽으로 증면해 내용을 혁신하고 동년 10월부터는 사진(화보)을 신기 시작했다. 판형과 형조는 변함없이 하고 지면은 계속 늘어나 1990년 4월부터 12쪽, 동년 11월부터는 16쪽으로 증면했다. 1991년 1월호부터는 제호를 '연못골'로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별히 1994년 10월호는 교회창립 100주년 기념 특집호(36쪽)로서 표지를 처음 칼라인쇄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전도와 친교의 매체로서 연못골의 내용과 모양은 급격하게 변했다. 그 내용은 충실해졌고 지면은 편집예술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연못골에서 보는 연못골로, 교인들 품으로 다가서는 동반자가 됐다.



교회안내 · 교회요람 · 연동요람

1970년대는 벽보 '교회요람'
1991년부터 '연동요람' 확정



1966년 1월 백리언 목사시대에 '교회안내' 책자(25×10cm·18쪽)를 발간했다. 간단한 교회연혁과 교세통계를 비롯해 제직 및 각 위원회·각 기관, 그리고 연간행사 등 그 짜임이 완벽할 뿐만 아니라 교역자와 제직의 독사진까지 게재했다. 1969년부터 1980년까지는 낱장(52.5×39cm)으로 된 벽에 붙이는 '교회요람'으로 하단에 12개월의 달력을 넣었다. 달력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때 '교회요람'은 비기독교인들까지 요구해 1석2조의 진도효과를 거두었다. 1981년부터 책자형(13×19cm)으로 하고 제호를 '교회요람'으로 했으며 1991년부터 크기는 변동없으나 제호를 '연동요람'으로 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